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① 03. ② 04. ④ 05. ② 06. ① 07. ④ 08. ⑤ 09. ② 10. ③
11. ⑤ 12. ① 13. ① 14. ⑤ 15. ⑤ 16. ⑤ 17. ④ 18. ④ 19. ④ 20. ③

1. 석가모니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여덟 가지 바른 수행인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였다. 석가모니는 업(業)에 의해 생사의 세계를 그치지 않고 돌고 도는 윤회를 완전히 끊어 내려면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목자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兼愛)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공자는 자신의 지위와 명분에 알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정명(正名)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노자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바탕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맹자는 사단(四端)을 확충하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야[求放心(구방심)] 한다고 보았다.

2. 벤담과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았다. 벤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시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이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벤담은 고통을 동반한 행위일지라도 공리 증진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 ③ 밀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하므로 쾌락의 양을 늘리는 행위가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 ④ 밀은 질이 낮은 쾌락을 바라는 것은 공리 증진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벤담과 밀은 공동체의 이익과 그 구성원 이익의 총합은 같다고 보았다.

3. 마르크스와 민주 사회주의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마르크스의 입장이고, (나)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완성된 사회에서 노동은 그 자체로 삶의 첫 번째 욕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고 노동이 사유 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③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특정 계급의 독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 사회주의는 자유로운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통한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 ④ 민주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자유 시장 경제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 사회주의는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 공업 등 중요한 부분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 ⑤ 민주 사회주의는 국가와 계급이 소멸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 사회주의는 국가 안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한 점진적 사회 개혁을 주장한다.

4.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인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가 쾌락이라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적극적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에픽테토스는 공적인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성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에픽테토스는 외부 사건은 인간에게 달려 있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며 인간은 외부 사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살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삶이 운명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운명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5. 비롤리와 벌린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비롤리, 을은 벌린이다. 비롤리는 애국심은 시민적 삶을 통해 고양되는 인위적인 감정이라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비롤리는 정치 공동체의 시민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벌린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일지라도 개인의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벌린은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 ⑤ 비롤리와 벌린은 모든 지배와 간섭을 벗어난 정치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비롤리는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를, 벌린은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난 자유를 중시하였으며, 비롤리와 벌린 모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6.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악(惡)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순전한 성(性)이 아니라 맑음과 흐림의 차이가 있는 기질에 있다고 보았다. 주희는 성인(聖人)이 되려면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주희는 본연의 성은 치지(致知) 수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주희는 수양을 통해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心外無理(심외무리)]고 주장하여 이치가 마음 밖의 사물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④ 왕수인은 사람은 누구나 천리(天理)로서의 양지를 지니고 있으며,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왕수인에게 치지격물(致知格物)이란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 ⑤ 왕수인은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心卽理(심즉리)]이며 천리로서의 마음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7. 스피노자와 흄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피노자, 을은 흄이다. 흄은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거나 억제할 수 없지만,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정념에 기초하고 있는 판단의 오류를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스피노자는 정념은 필연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인 신, 즉 자연과 이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스피노자는 모든 양태는 자기 파괴 성향을 지니지 않으며 본성상 자기 보존 성향을 지닌다고 보았다.
- ③ 흄은 선과 악은 행위에 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흄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이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나 품성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보았다.
- ⑤ 스피노자와 흄은 자기 이익 추구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이성에 따른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 추구는 덕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흄은 자기 이익 추구도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면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8.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형구(形軀)의 기호만 지닌 존재인 동물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인 영지(靈知)의 기호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선도 욕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은 인의예지라는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② 정약용은 의와 불의, 선과 악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타고난 능력이라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예의 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정약용은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는 마음은 사욕(私欲)과 상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9. 용수와 세친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중관 사상을 주장한 용수이고, 을은 유식 사상을 주장한 세친이다. 용수는 모든 것은 연기(緣起)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 의존적인 것이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성질, 즉 자성(自性)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용수는 공(空)은 고정불변하는 유(有)나 아무것도 없는 무(無)와 같이 극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도(中道)를 강조하였다.
- ③ 세친은 공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물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④ 세친은 중생이 마음에 본래 불변의 본질이 없다는 공성(空性)의 완전한 진실을 깨달을 때 해탈할 수 있으며, 이는 일체의 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킴으로써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지(智)를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⑤ 용수와 세친 모두 삼학(三學)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만이 불성을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10. 루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루소의 주장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은 국가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루소는 일반 의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보았다.
- ② 루소는 주권이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대표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④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주권자만이 법의 정당한 집행자는 아니며 법의 집행은 정부가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루소는 사회 계약으로 수립된 주권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므로 공동 이익의 침해를 의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11. 스미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스미스는 인간의 행위는 이기심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스미스는 인간에게 도덕 감정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②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정부의 필요성을 제거한다고 보지 않았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③ 스미스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법적 체계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스미스는 자유 시장 경제에는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12.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은 신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사랑의 질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덕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보았다(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였으며 인간이 그 자유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죄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아퀴나스는 신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참된 행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실현할 수 없고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3.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존재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경향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의무의 형식으로 부과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칸트는 의욕의 주관적 원리인 준칙이 보편화 가능할 때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정언 명령만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의 실천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언 명령도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의 실천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인간이 경향성의 영향을 받아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입법하고 그 법칙에 따를 수 있으므로 인간은 자율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의무로부터의 행위가 가진 도덕적 가치는 행위 대상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위하려는 선택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14.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프로타고라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 반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입장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ㄱ).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ㄷ). 프로타고라스는 사람마다 경험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면 각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ㄴ).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ㄴ.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악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한다고 보지 않았다. 악행은 참된 선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다.

15. 이항과 이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이, 을은 이항이다. 이이와 이항은 모두 사단이나 칠정은 성(性)에 근거해야만 발현[發(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이는 이(理)는 기(氣)에 의해 국한되지 않고 두루 통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② 이이는 칠정 중 선택 부분의 정(情), 즉 사단은 이와 기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③ 이항은 이는 반드시 기 위에 올라타야만 발하여 움직일 수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는 기 위에 올라타지 않아도 발하여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이항은 마음의 흐트러진 기를 경(敬)을 통해 성(性)과 분리해야만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항은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16.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품성적 덕이 있는 사람, 즉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잘 판별하는 탁월함은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라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의 덕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성

에 따라 육체적 즐거움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의한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부정의한 사람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의 덕은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하는 품성적 덕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의 덕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이유로, 마땅한 방식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견디는 중용, 즉 품성적 덕으로 보았다.

17.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하였으며, 인간은 주어진 본질이 없기에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키르케고르는 주관적 진리가 편견일 뿐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주관성이 진리라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실존과 신앙의 문제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결단과 주체적 수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② 키르케고르는 유한성의 극복은 윤리적 삶이 아니라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결단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자유로운 존재로 세계에 내던져져 있으며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보았다.

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은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18. 노자와 장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 을은 장자이다. 장자는 만물은 상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그 안에 도(道)라는 절대적 근원이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도와 덕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② 노자는 도를 도라고 언어로 규정하거나 이름 붙일 수 있는 도는 진정한 의미의 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③ 장자는 개별 사물이 저마다 도에 따른 고유한 자연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⑤ 노자와 장자는 모두 인위적인 욕망과 행위를 버리고 무욕과 무위를 실천함으로써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19. 순자와 맹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하늘을 물리적 자연이나 자연 현상으로 보았으며,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의 것[天人分二(천인분이)]이

라고 주장하여 도덕적 근거를 하늘로부터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본 반면 맹자는 도덕의 근거를 하늘로부터 도출하였다(ㄱ). 순자와 맹자 모두 이기적인 욕망의 극복을 위해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ㄴ). 순자와 맹자 모두 군주는 백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ㄹ. 맹자는 정치는 도덕적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어진 마음에 기초한 왕도(王道) 정치를 강조하였다.

20.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위정척사 사상을 주장한 최익현, 을은 동학사상을 주장한 최제우이다. 최제우는 모든 인간은 그 안에 한울님을 모신 존재로 보고, 한울님을 모시는[侍天主(시천주)] 마음으로 인간을 평등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최익현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유교적 질서와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절의(節義)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최익현은 서학(西學)을 수용하게 되면 예의는 사라지고 사람은 금수(禽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학의 수용을 반대하였다.
- ④ 최제우는 신분 차별이 사라진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 사회가 현세에서 도래할 것이라는 후천 개벽 사상을 주장하였다.
- ⑤ 최제우는 모든 인간은 한울님을 모신 존재라고 보고 시천주 사상에 근거하여 인간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제시하였으며 신분, 남녀, 노소의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질서를 비판하였다.